

## 야요이 시대의 와카사·쓰루가 지역

### 개요

야요이 시대(기원전 400년~300년)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행된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논의 벼 작법과 청동 및 철의 금속가공기술이 아시아 대륙에서 규슈 북부로 전해졌고, 거기서 규슈 전체와 혼슈, 시코쿠로 확대되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중요한 유적이 오바마 평야나 쓰루가 평야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계급사회가 서서히 출현하게 된 것 등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발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굴된 유적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 상세 정보

#### 야요이 토기

조몬 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400년)의 토기와 비교하면 야요이 토기는 일반적으로 장식이 적고, 요철이 적은 기능적인 형상이 특징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과정은 거의 비슷했는데, 긴 점토 줄을 빙빙 감아올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토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바깥쪽에 간단한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조리용 냄비, 저장용 항아리, 그릇, 다리 달린 접시 등 토기의 종류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아시아 대륙에서 전해진 철기와 청동기 그리고 금속가공의 발전

야요이 시대에는 무기와 의식용 청동거울, 동탁(종 모양의 청동 제기) 등 다양한 철기와 청동기가 일본 열도에 전해졌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장인들은 수입된 원료로부터 무기나 도구, 의식용 물품 등을 만들기 위한 금속가공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청동이 철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더 귀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청동기는 무기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사회계층의 발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동탁과 기타 의식용구

야요이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특징적인 주요 청동기 중 하나는 동탁이라 불리는 의식용 종입니다. 이 의식용 종 표면에는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때로는 동물이나 인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동탁의 일부는 실제로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동탁의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밖에 의식용구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돌을 연마하여 만든 무기형 석기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수입된 청동이나 쇠검, 창날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쓰루가의 요시코 유적

요시코 유적은 야요이 시대 중기에 만들어졌으며, 쓰루가 평야 남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적 북부는 거주지로 수혈식주거와 목조기둥을 지면에 세워 지은 평지주거, 고상식주거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남부는 묘역으로 간단한 묘혈과 영향력 있는 일족을 매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큰 도랑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무덤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매장 형식은 야요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와 간석기, 제기, 제작 도구의 대롱옥, 대롱옥을 만들기 위한 도구류 등이 있습니다.

### 오바마의 후추이시다 유적

후추이시다 유적은 2005년~2008년에 발굴되었는데, 많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는 와카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도랑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매장지와 호쿠리쿠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목제 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적에서 69동의 구조물에 사용된 목제 기둥 120여개가 출토되어 야요이 시대 기둥을 기초로 한 건물 구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남부에는 바닥에 기본적인 정수장치를 갖춘 우물도 있었습니다. 또, 후추이시다 유적은 간사이 지방의 야요이 유적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형태와 비슷한 파형동기와 주로 혼슈 서부에 있는 주고쿠 지역이나 시코쿠에서 볼 수 있는 분동형 토제품이 후쿠이현 최초로 발견된 유적이었습니다.

### 전시품

이 코너에는 와카사와 쓰루가 지역에서 발굴된 새로운 도구와 기술, 토기의 출현을 반영한 야요이 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추이시다 유적에서 발굴된 목관은 기원전 300년~기원전 200년경의 것으로 일본삼나무의 큰 널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닥판에는 관을 운반하기 위한 손잡이로 추정되는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후추이시다 유적과 요시코 유적에서 출토된 두 쌍의 옹기, 항아리, 다리 달린 접시 그리고 기타 토기들은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개의 야요이 촌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코 유적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작은칼은 한반도에서 가져온 금속 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화살촉은 제조방법과 재료가 점차 발전했음을 나타냅니다. 돌의 일부를 깎아 만든 잎 모양이나 삼각형 돌화살촉은 오래된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삼각형 화살촉은 야요이 시대에 출현한

새로운 기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청동 화살촉은 당시에 최신 기술이었던 금속가공의 한 예입니다. 요시코 유적의 출토품을 사용해 벽옥의 관옥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도구류와 완성까지의 여러 단계에 있는 다수의 관옥들은 관옥 제조가 이 유적 일부 주민들의 직업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 모양의 토제품 조각은 요시코 유적에서 주목할 만한 출토품 중 하나입니다.